

어린이 책꽂이

▲꼬마 모모-루의 집을 찾아주세요= 때론 엉뚱하지만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는 꼬마 모모의 이야기 시리즈. 곰인형 루에게 심술을 부린 모모는 막상 곰인형이 집을 나가자 보고 싶은 마음에 루를 찾아 떠난다. 결국 루를 찾게 된 모모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은하수 미디어·5천원>

▲꼬마 비행기 플랩=비행기와 새를 의인화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그린 그림책이다. 화려한 빛깔과 역동적인 구도가 돋보이는 이 책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원>

▲만화로 보는 대조영=잊혀진 우리의 영웅, 발해의 대조영의 삶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대륙의 기상을 일깨우는 만화책. 고구려의 발달과 함께 혼란에 빠진 한반도 이북과 동북아 대륙의 여러 민족을 통합해 제국을 건설한 대조영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가나출판사·9천원>

▲눈술·명작 시리즈-오만과 편견=초등학교를 위한 눈술·명작 시리즈로 영국작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명작 살펴보기, 명작 읽기, 깊어지는 눈술, 눈술 워크북 등 4개의 장으로 나눠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이세움·7천500원>

▲나뭇잎과 함께 하는 초등학생 교양 과학=에니메이션 최고의 스타인 나뭇잎이 어린이들의 과학공감증해결사로서 등장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우유는 왜 흰색일까요?', '말은 왜 서서 잠을 잘까요?', 'UFO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등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궁금증이 소개되었다. <이름주니어·8천원>

살인사건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像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이수광 지음

성경으로 본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의 큰 아들 카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이처럼 살인은 인류와 함께 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다.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속의 요원처럼 과학적인 장비도 없었을텐데 범인을 밝혀내는 게 가능했을까.

추리소설가 이수광의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은 조선시대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재구성, 사건의 발생에서 검거에 이르기까지를 엮어놓은 책이다. 저자는 '좌포도청등록', '우포도청등록', '조선왕조실록', '홍음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소설의 형식을 빌려 읽는 재미를 더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특히 저자가 많은 부분 참조한 조선시대 수사 지침서 '무인록(無冤錄)'과 형사사건 기록 '심리록(審理錄)'에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노력이 잘 나타난다.

'무인록'에는 사체 검안 및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검안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영·정조 시대의 형사사건 관례집인 '심리록'은 무인록의 내용에 따라 사체를 다루고 사건을 풀이하던 실제 사례들이 기록돼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현대 경찰에게도 격언처럼 사용되는 '사체는 말한다'는 당시에도 통용됐다. 책은 권력층 양반이 저지른 살인, 여성의 살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살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해결된 살인 등 당시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1603년(선조 36년) 현재의 부총리급 관리인 유

림 사용되는 '사체는 말한다'는 당시에도 통용됐다. 책은 권력층 양반이 저지른 살인, 여성의 살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살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해결된 살인 등 당시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1603년(선조 36년) 현재의 부총리급 관리인 유

사체 검안에 과학적 수사방법 동원

권력 양반층·엽기적인 살인 등 다뤄

희서가 도적떼에 의해 살해돼 조정이 발각 뒤집힌다. 포도대장 변양걸의 수사 결과 범인은 유희서의 첩과 간통한 선조의 아들 임해군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4명이 옥 안에서 다시 살해당한다. 권력자들의 치정에 얽힌 희대의 살인사건인 것이다. 하지만 선조의 비호 아래 범죄를 끝까지 부정하던 임해군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변양걸이 파직당하는 것으로 사건의 막이 내린다. 조선시대에도 사체가 횡행했고, 이로 인한 살인 사건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예도 있다.



'무인록'을 바탕으로 조선 말기에 편역된 '중수무원록언해'에 나오는 인체도 양면(앞면).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검시를 통해 시장(屍狀)을 작성했다.

1677년(숙종 3년) 한양의 성 밖에 있는 목을 맨 나무에 매달린 여인의 사체가 발견된다. 검시관의 사체 검안 결과, 여인의 목에는 액흔(縊痕·목을 매 때 남는 상처)이 없었고, 풀이 감긴 나무껍질도 벗겨지지 않았다. 몸에는 찢자국과 멍이 엉켜 있었다. 누군가 먼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려 한 것이다. 포도청은 숨진 여인의 남편이 사체를 빌려서 뒤 채무자에게 끌려갔다 도망치자 채무자들이 여인을 잡아다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 밖에 조카와 간음하던 여인이 이를 알아차린 자신의 머리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노리다 3년 만에 해결되는 살인사건, 노비가 주인을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적 사건 등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다산초당·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진도 윤림산방의 배롱나무를 바라보며 쓴 적이 있다. 윤림산방은 소치(小巖·허련·1808~1893)가 오랜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말년에 안거한 곳이다. 나는 안거하기에는 자격이 떨어졌고 실직에 대한 예감과 머잖아 다칠 '마흔'의 무게로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조바심만이 유일한 벗이었던 시절, 나는 소치의 '선면산수도'(윤림산방의 옛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속의 윤림산방과 눈앞의 풍경을 번갈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가.

나이 서른 이전에는 배롱나무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서른이 넘어서야 그 나무의 몸통에 가만 손을 대보게 되었는데, 그건 삶의 저 편에 대한 조심스러운 노크랄까. 그때 나무의 응답은 환상 삶에 대한 '경외'보다는 '결핍', '불안'에 가까운 흔들림이었다. 내일 모래면 마흔이 내 머릿속에 새겨들고 죽을 때까지 나를 친친 끌고 갈 것 같은 예감이 몸서리치곤 한 때였다.

그리고 나는 마흔을 넘겼다. 세월은 언제나 훌쩍 간다. 올해 마흔 셋인 나는 여전히 흰 머짐이 피고 많은 얼룩을 간직한 채 뼈뺀 마른 배롱나무 가지에 노크를 한다. 의문이란 여전히 생의 집착에 다름 아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란 늘 더 많은 가치를 치며 하늘거리

삶에 대한 '물음의 잔치'



는 의문의 잔치 같은 것은 아닌가.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1,2'(솔 펴냄)는 우리 선인들이 그린 그림에 대한 '의문의 잔치'와도 같다. 그는 해박하나 그 문체는 단아하며, 쉽다. 글을 써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금세 안다. 그는 그만큼 노크하였고 그만큼 공들여 썼으며 그만큼 정확히 안다.

그는 책의 머리글에서, "그림을 아는 사람은 설명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물고르미 바라본다. 그리고 그림을 즐기는 사람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거기에 그려지는 대상을 유심히 살펴볼게 된다."고 했다.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묻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김병국의 '달마상', 윤두서의 '자화상', 김경희의 '세한도' 등 17편의 그림에 대한 그의 글은, 단순한 그림 감상법을 넘어서서 그림 속 주인공들과 화가의 시대, 생활, 철학, 생애를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의문의 잔치'를 벌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오주석은 마흔 아홉 해 동안 이성에 적을 두었다.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첫 번째 권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그 두 번째 권은 그의 사후 1년이 되던 지난 2월에 나왔다. 미완의 유고인 셈이다. 출간에 부치는 글에서 미술사학자 조우방은 "옛 그림의 화의(畫意)를 등불처럼 환하게 밝히는 책"이라고 썼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박물관이나 전시실의 우리 그림 앞에서 무엇을 감상할 줄 몰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변화는 그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시실 밖의 온갖 사물들, 그리고 의문없는 삶의 여정을 이어질 것이다. 삶이란 '왜?'냐고 물을 수 있는 자유에 다름 아니다. <송광롱> <시인·문학평론가·발행인>

'반 고흐 전설' 만든 모티브는 무엇?

반 고흐 효과 나탈리에너 지음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 스스로 잘라 버린 귀, 설흔 일곱살에 감행한 권총 자살, 이해받지 못한 천재, 작품의 기록적인 판매 금액... '해바라기'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는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미술인 중의 한명일 것이다. 살아서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단 한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고흐는 어떻게 예술계의 전설이 되었을까. 사회학자 나탈리에너 지은 '반 고흐 효과-무명 화가에서 문화 아이콘으로'는 그의 사후 100년 동안 어떤 모티브가 반 고흐 전설을 구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과정과 왜곡은 없었는지 등을 통해 사회가 특정한 인물을 문화적 아이콘으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반 고흐 대 빈센트' '광기와 회생' '돈과 관람, 참여로 이루어진 보상' 등으로 구성된 책은 사회학·인류학 등을 넘나들다 보니 다소 어려운 편이다. <아트북스·1만5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불꽃같이 살다 간 '인간 최승희'

불꽃 최승희 저서전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육필 원고와 책으로 묶여 나왔다. 1911년 강원도 흥천에서 태어난 최승희는 일본으로 건너가 춤을 배우고,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가 인막과 결혼해 월북한 뒤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1969년 북한 당국에 의해 숙청당하면서 '불꽃같은 삶'을 마감했다. '불꽃' 1부는 최승희의 수필 9편과 친 오빠 최승일과 나눴던 편지 3편 등이 실려 있고, 2부는 무용가,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최승희에 대한 단상을 적었다. 무엇보다 직접 쓴 글을 통해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 등 '인간 최승희'를 만날 수 있다. <자음과모음·1만1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센터
(대)071-0823, (민)011-607-2213
익산권신리(유자)구수원 1500평
남구 승촌4단지 257평 매도
나주 도로 성산리 배밭 4700평
나주 문곡농공단지 1030평
장흥 유치 대천리(전·담)임야
진월동APT입구 상가부지 380평
나주 남평 서산리(드림강원원지)
나주공단 금곡 생녹지 458평
나주 평산리 배밭 1850평
양과동 G/B 597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대)062-7100, (민)010-4325-1323
장성지역
공정부지, 불류참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한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점
대지 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축가능)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0522-9422, (민)011-643-3210
동림2지구 하 하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임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대)010-9455-2200, (민)074-1500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이장동 1중 주거지역 근매
남구 양과동 600평 근매
남구 이장동 700평 매매
남구 지석동 1중 주거지역매
남구 양과동 전 400평 근매
남구 회정동 1중 주거지역 매매
광주 남구 대지동 중택매매
남구 양과동 대지 근매

신도시중개사
(대)061-833-6669, (민)010-8004-6669
심 고층 -여수 연육교 앞 아름다운 심
우주센타
우주센타
우주센타
우주센타

국민공인중개사
(대)011-635-7939, (민)010-3114-6103
건물
방
신도시 전문중개
10억8천 원의 신도시 전문중개

한 일 지도 (주)
(대)529-1409, (민)010-2466-1409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광주·전남 전지역
실사확인도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한 일 지도 (주)
(대)529-1409, (민)010-2466-1409